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134
----------	-------

발의연월일: 2025. 8. 12.

발 의 자: 신정훈 · 김문수 · 양부남
이광희 · 모경중 · 박정현
윤건영 · 장종태 · 채현일
권칠승 · 송재봉 · 최혁진
백승아 · 한창민 · 이정문
박 정 · 서미화 · 김용만
김성희 · 차지호 · 이연희
김남희 · 임호선 · 추미애
이학영 · 용혜인 · 박해철
윤종균 · 이원택 · 이재관
박은정 · 신영대 · 문금주
박선원 · 강준현 · 박지원
민병덕 · 이재강 · 서영석
황명선 · 김준혁 · 서영교
이상식 · 권향엽 · 윤준병
이주희 · 정태호 · 위성곤
민형배 · 이해식 · 손명수
이훈기 · 조계원 · 박홍근
이건태 · 조정식 · 고민정
홍기원 · 허 영 · 염태영
박민규 · 정진욱 · 유동수
전종덕 · 황정아 · 이개호
임미애 · 김 현 · 김정호

곽상언 · 김남근 · 박균택
허종식 · 김준형 · 박찬대
허성무 의원(76인)

주 문

현행 경찰의 날은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을 기념하여, 1973년부터 10월 2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경찰의 창설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그 연원을 찾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법령으로 내무부 산하 경무국의 직제와 사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찰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직이다.

이에 경찰의 날을 현행 10월 21일에서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인 4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친일, 고문, 내란의 역사와 단절하여 경찰 조직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현행 경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 4월 25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현행 경찰의 날은 미군정기에 설치된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찰의 법적·역사적 정통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 경찰의 기원은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직제」를 공포하여 내무총장 산하 경무국을 설치한 데 있으며, 이는 독립운동 기반의 자주적 치안조직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의 헌법적 법통에 부합함.

이에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며, 민주경찰로서의 사명과 국민 신뢰를 재확립하고자 함.